

# 기독교성직주의,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



최근 몇 개의 대형교회가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했다. 목회자의 윤리, 교회의 재정 사용, 세습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모두 교회의 세속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 세속적인 마케팅 원리 수용, 무리한 건축 등과 관련되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목회자가 있다 보니, 성경적 목회자상이 궁극 해진다.

김동호 목사도 한국 교회 문제의 핵심을 목회자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많을 것인데, 그중 목사직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핵심적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목사직에 대한 정확한 역할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목사직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목사의 직이 잘못 부풀려져서 마치 중세 교회와 같이 높아지게 되었고, 필요 이상의 권한과 권력이 주어짐으로 스스로도 타락하고 교회도 부패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둘째, “목회 외에는 어떤 직업도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자기 직업을 세속화하여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의 이중성을 가져오게 되어 기독교인들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문제는 목회자의 직분만이 성직이라는 ‘성직주의’의 폐해에 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목회자들의 성직주의는 직위의 문제나, 사례를 받는 것이나 무슨 칭호나 공동체에서 한 자리를 얻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크게 보면 목회자들만이 교회를 위해 비전을 제공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의식에 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불가결한 존재라고 느끼고 교회의 모든 책임자이자 머리되신 예수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교회를 운영하려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 1. 목회자 직분은 성직인가?

성경은 목회자 직분만 성스럽고 세상의 다른 직업은 다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뿐더러 어떤 직업이 높고, 어떤 직업은 낮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민족, 신분, 시간, 장소, 사역 등의 차이가 없다. 성경은 목회자뿐 아니라 크리스천 모두가 제사장이요 성직자라고 가르친다(벧전 2:9). 만인제사장론과 교회 지체론이 이를 말해준다.

(1) 만인제사장: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였다. 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히 7:27)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제사를 드림과 아울러 자신을 흠 없는 속죄제물로 드렸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참고, 출 19:5-6)



**김의원** 송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수료한 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 구약신학 석사(Th.M.)를, 뉴욕대학교에서 고대 근동어과 히브리어 전공(현 히브리어와 유대학과) 철학박사(Ph.D.)를 취득하였다. 이후 뉴욕중부교회를 설립 및 담임하였으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제2대 총장으로 섬겼으며,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이자 구약교수로 섬겼다.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이사장이자 새생명교육공익재단 이사장, 동탄사랑나눔재단 이사장, 한미문화협회 이사장, 아태지도자개발연합(AT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원장이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두 가지 면에서 신약의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첫째, 우리 모두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 중보자가 없다. 둘째, 우리는 세상과 서로를 위한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를 대변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루터는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자신이 이미 사제, 주교 또는 교황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이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이며 우리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음을 확신하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2) 지체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교제’ 등 여러 용어로 말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의 지체”(몸)이라는 것이다. 지체로서의 교회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임재로 활력을 얻고 생동하는 백성을 말한다. 모든 신자들이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지체로서 목회자나 평신도는 기능상의 차이는 있어도 권위적 차이나 신분의 차이는 없다. 모두 한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에 근거한 한국 사회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지체로서의 직분들이 제도화되고 피라미드형의 권력구조와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교회사역은 목회 전문가들의 사역이 되고 평신도 교인들은 구경꾼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 중심의 교회를 말한다. 각 지체 사이에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없다. 다만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배와 사역은 소수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의 표현이다. 백성들은 배우이며 예배지도자는 연출가이며 하나님은 관객이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사역자들이다.



● 그리스·로마 시대의 행정제도에는 두 계층이 있었다. 한 계층은 시정 책임자인 '클레로스'(kleros) 곧 행정관들이고, 다른 계층은 피통치계급인 '라오스'(laos), 곧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이었다. 이 용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전자는 성직자(clergy)를, 후자는 평신도(layperson)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 2.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

둘 사이의 구분은 교회가 세상의 지도 체제를 모방하면서 세속화된 결과이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행정제도에는 두 계층이 있었다. 한 계층은 시정 책임자인 '클레로스'(kleros) 곧 행정관들이고, 다른 계층은 피통치계급인 '라오스'(laos), 곧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이었다. 이 용어가 교회에 들어와서 전자는 성직자(clergy)를, 후자는 평신도(layperson)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를 하나님 백성 곧 '라오스'로 표기하였다. 이 단어는 영예로운 단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전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laos)”(벧전 2:9)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특권이 교회 전체에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적 지도 체제를 신약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경건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평신도라는 말은 이류 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전락하였다. 더욱 성례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 성례를 집행하고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계층' 즉 평신도 층이 형성되었다.

### 3. 목사직에 대한 성경적 정의

(1) 용어: 한글 성경에 ‘목사(pastor)’란 용어는 에베소서 4:11에 한 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와 관련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더불어 사용되었다. ‘목사’의 문자적 의미는 ‘양을 치는 목자’란 뜻이다. 이 용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었다.

(2) 역할: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를 세우고 은사를 주신 까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katartismos)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엡 4:12)는 데에 있다. 여기서 목사의 주된 기능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란 용어는 도덕적 의미에서 온전함이 아니라 ‘무장시키다’(RSV), ‘(훈련시켜) 온전케 하여 (성도의 역할을 하게 한다)’(KJV), ‘준비시키다’(NIV)의 의미를 갖는다.

‘구비시킴’의 헬라어 ‘카타르티스모스’는 명사로서 여기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섬기는 일이나 행동을 위해 준비시키거나 유능하게 함”이다. 이 용어에는 고대 헬라어의 의학 역사가 담겨 있다. 구비시킨다는 것은 몸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건강하도록 뼈나 마디마디마다 또 부분 부분마다 잘 맞추는 것, 탈구한 수족을 교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비(무장)하다’의 동사 ‘카타르티조’(katartizo)는 성경에서 13번 사용되었고, “질서를 잡다, 회복하다, 준비하다” 또는 “나아갈 길을 지적해 주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를 구비(무장)시킨다는 말은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 그들의 성품을 형성시킨다는 뜻이다.

(3) 구비시키는 은사: 성경은 구비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직무라고 말한다(엡 4:12).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세상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란 성도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소명)에 따라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후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곧 목회자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하는 임무를 맡았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항상 목사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양이나 목회를 구경하는 청중과 같은 피동적인 역할에 길들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 곧 목회자의 은사는 교인들의 은사를 발굴하여 빛나게 해주는 기능을 해야 하며, 목회자의 임무는 목회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작은 목자들로 성숙시키는데 있다. 이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만인제사장직의 원리가 온전하게 구현되는 것이다.

(4) 요약: 사도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웠고, 선지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였으며,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목사들은 지역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였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교회에서 그들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즉,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에 자신의 은사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